

개신교 조직적 불교 폄훼 심상치 않다

종교화합 빨간불...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문제 제기 하기로

종교간 화합에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개신교계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시작한 불교 비방이 연일 거세지면서 자칫 두 종교계간 갈등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범불교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최근의 갈등은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교회평의회, 한국교회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가 7월 14일자 동아·문화·국민일보 등에 '종교계는 국민혈제로 종단 운영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하의 광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어 한국교회언론회는 8월 10일 '종교편향 문제점을 곡해하지 말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공세를 지속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회장 동광)은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신교 단체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종단 차원의 엄중한 대처를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개신교계의 조직적인 불교 폄훼에 종단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차회는 종단에 △개신교 단체가 사과할 때까지 한국종교인지도자협의회 활동을 중단할 것 △대구역사문화공원 사업 무산과 템플스테이 예산 축소 움직임 등 각종 피해 현황을 분석해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해명을 촉구할 것 △'헌법과 종교편향 중식 범법고대추위원회' 조직 구성을 재검토할 것 등을 촉구



서울 조계사는 8월 1일과 7일 신도총회를 열고 △개신교의 불교 폄훼 등 물자각한 종교갈등 조정행위 중지 △종교사학 등에 지원된 국고예산을 통한 선교 행위 중단 △MB정부의 전통문화 예산 집행 축소 행위 중지 등을 촉구했다.

했다. 이어 스님들은 총무부장 영담 스님을 찾아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영담 스님은 "대구역사문화공원 사업 무산은 대구 등화사 등 지역불교계가 나서야 할 단계"라며 "종단은 7대 종단이 모인 종지협에서 총무원장스님이 정식으로 문제제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7월 23일 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를 통해 '일부 배타적 개신교 단체의 종교 및 불교비방 견제'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기총은 26일 조계종 총무

원장 자승 스님, 종지협 의장 이광선 한기총 회장 등 종지협 대표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개신교단 내 일부 단체의 불교 폄훼 활동과 관련해 종단 자체적으로 내부 설득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말 뿐이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공동위원장 혜경 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은 "현재 종평위는 종지협 등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논의 중에 있다. 정부 관계 부처에도 강력하게 의사

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계종은 성명서 및 광고가 일부 개신교 단체의 성명발표이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혜경 스님은 "한기총 전체가 제기한 문제라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일부 단체가 제기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일부 단체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표출되면서 불교계에 싸움을 걸어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섭·이상연 기자

개신교 반발 불교테마공원 백지화 "문화재보수비 600억 근거없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7월 15일 대구 CBS '라디오 세상읽기' 라디오 방송에서 "지역 기독교계가 반대하고 있는 팔공산 불교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정부에 예산지원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사실상 백지화할 뜻을 밝혔다.

3대 문화권 선도사업의 하나로 팔공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구상했으나, 종교적인 문제와 팔공산 자연훼손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리 있다고 판단해, 정부예산 지원요청에서 이 사업을 제외했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그 배경에는 대구지역 개신교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연사연 김영국 공동위원장은 "불교 문화재의 상당 부분이 국가 문화재다. 개신교계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부적절한 지적"이라며 "불교계가 문화재 보수비로 60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개신교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계종 문화부 심주원 팀장은 "템플스테이 지원예산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 올해 185억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100억원 정도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개신교 반발로 정부 예산편성작업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연 기자

이찬수 종교문화연구원장 개신교 성명 원인 진단 문화재 대한 인식부족이 문제

이찬수 종교문화연구원장(前 강남대 교수·사진)은 최근 개신교의 잇단 성명 발표의 원인에 대해 "문화와 문화재를 일부 교단으로 바라보는 편협한 종교관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명박 정권 이전만 해도 개신교 권력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았어도 사회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정권부터 개신교의 권력화가 노골화 되면서 불교계 시민사회 등에서 개신교 편향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상

황이 달라졌다는 것.

이 원장은 "조직적인 사회적 견제장치가 없었던 개신교는 스스로 사회문제를 일으킬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최근의 일련의 상황은 보수 개신교가 정권 창출과 함께 내부 질서를 확립하면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자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불교)에 대해 응전하는 모양새"라고 해석했다.

불교와 개신교 갈등의 해법에 대해 이 원장은 정부 차원의 문화재교육 활성화 제언했다. 이찬수 원장은 "개신교계는 문화재 마인드가 부족하다"며 "정부 주도로 문화나 문화재 속에는 여러 종교가 녹아 있다는 것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연 기자

불교문화 대중화 하려면?

대중의 욕구 따라 맞춤 프로그램 절실

많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 프로그램이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각종 스님은 "선수행, 템플스테이, 산사음악회 등 불교문화프로그램마다 획일화된 것들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불교문화의 활로"라고 말했다.

스님은 "연등축제는 참여자에 따른 다양한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을, 템플스테이는 사찰별 브랜드화와 함께 △휴식형 △사찰생활형 △체험형 △수행형으로 특화할, 선수행도 참가자의 근기에 따라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각종 스님은 "선수행 프로그램이 높은 참여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선수행 프로그램은 여전히 어렵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면서 "대중화를 위해서는 선수행의 문화적 기능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 사찰별 특성화해야

스님은 "선수행 프로그램 대중화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행지도자를 종단이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제안했다.

각종 스님은 "연등축제는 축제로서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현재의 프로그램은 젊은이와 외국인에 집중돼 있다"며 "장·노년층의 참가를 유도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불교위원회 박상희 팀장은 "각자가 개인등을 스스로 밝히는 문화수준에 이르러야 진정한 연등축제가 될 것"이라며 "내 손으로 등을 만들겠다는 마음을 내고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등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종 스님은 "산사음악회의 문화적 효과가 종교적 효과로 이어진다는 개연성이 부족한 것은 다소 아쉽다"면서 "보다 높은 종교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종교적 색채를 강화하는 음악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인지 불교문화의

포교 효과성에 만족하고 현재의 음악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좋은벗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은 "불교문화로서 산사음악회를 접근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사음악회는 1년에 1~2회 대중에게 산문을 여는 오픈하우스와 같은 개념이라 굳이 불교적 색채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이종만 기획실장은 "산사음악회는 대중을 하나로 모으는 이벤트로 활용하는 것과 병행해 명사·작가 등을 초청해 문화법회를 여는 것이 불교문화 대중화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는 자연환경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사찰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하며 마음의

휴식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일이다. 전국 사찰에서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템플스테이와 관련해 각종 스님은 특화된 프로그램을 강조했다.

스님은 "템플스테이 경험자 중 재참가 의향을 가진 참여자는 90%가 넘지만 실제 재참가자가 27%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통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템플스테이의 정체성을 일반 문화상품, 대중화된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정신수양 프로그램으로 특화하고 개별 사찰들이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일반인의 선택의 폭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 불교문화사업단 기획홍보팀장은 "템플스테이를 방문한 외국인은 14만명, 내국인도 불자가 아닌 이들이 60~70%가 참여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컨설팅 팀을 꾸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원로 100인 "MB정권 독단 멈추라"

4대강사업 등 중단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 경고

종교계와 시민·사회 원로들이 MB정권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하·지선·법타·효립 스님 등 불교계 인사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도종환 시인 등 원로 100인은 8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MB정권이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원로들은 "MB정권 2년 반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관계는 완전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민주주의도 민생도 역주행하는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4대강 사업 중단과 친안함 국정조사, 공안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2010년 하반기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주2일 교육,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0년 7월 3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0년 9월 9일 목요일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대각스님, 서무선박사님, 김진걸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교예술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타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0년 7월 30일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0년 9월 7일 화요일

제천불교여자전문대학

◇불교교리 : 경, 율, 론, 선, 밀교
◇불교의식 : 조석예불, 불공, 시식, 장엄예불 등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목요일 오후 3시까지
◇교육장소 : 제천 금강사(충북 제천시 모산동)
◇개 강 : 9월 8일 (수) 오후 2시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도기스님, 대각스님, 서무선박사님, 김진걸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활안 한정섭스님의 경전 강의 -

월요경전반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기초반 1시 30분 연구반 3시 30분

◇개 강 : 2010년 9월 6일 월요일